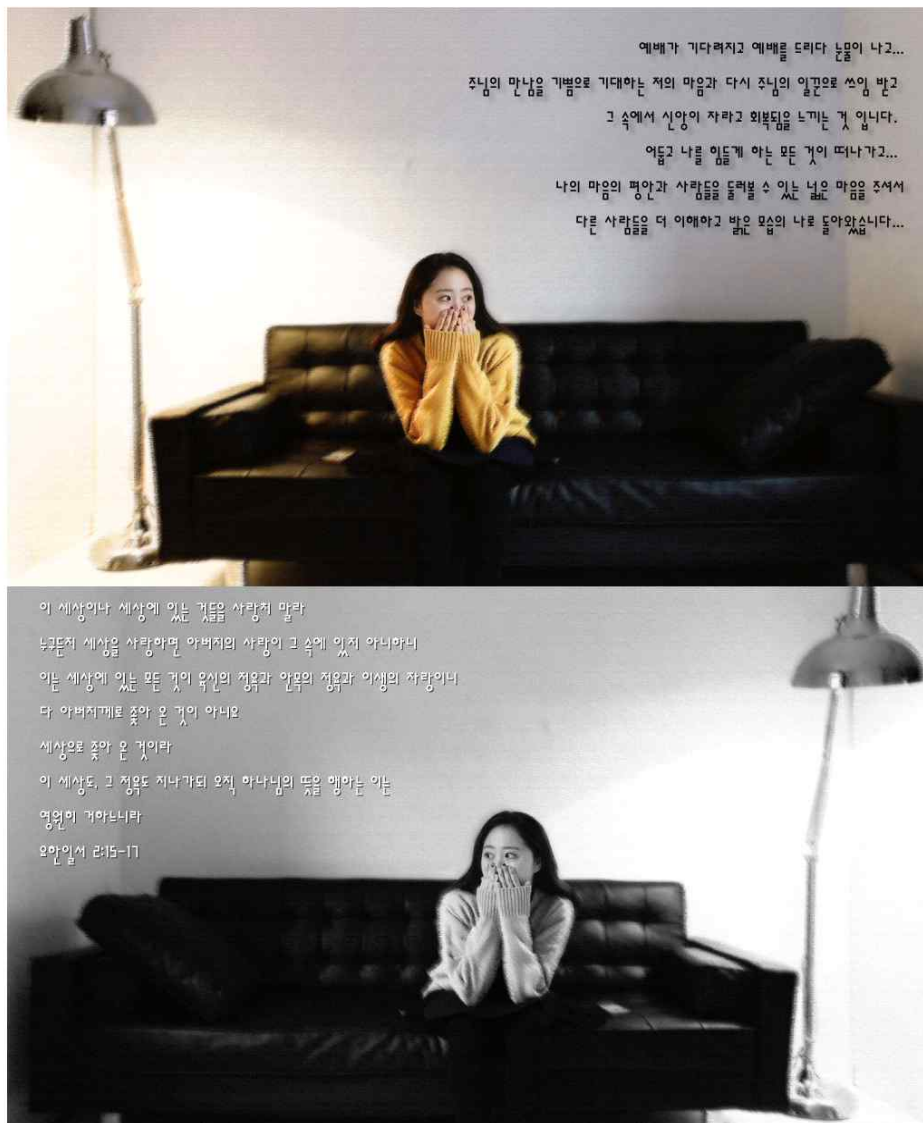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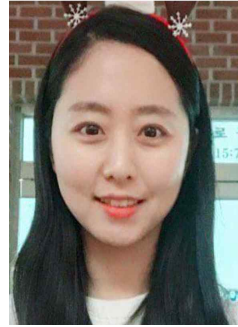
발행일 : 2018 . 7 . 8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이달의 간증>

-유혜진 청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5-17)



안녕하세요. 천국의 보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랑스런 우리 당진순복음교회를 더 섬기고 싶은 유혜진 청년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간증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남기자마자! 저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어리고 무력무력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 나의 청년의 때에 어떻게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회사를 그만 둔건 다들 알고 계시죠!? 2013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속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부러움을 받았고 자랑스럽게 4년이라는 시간동안 열심히 일해 왔고 또 그 4년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감사한 마음 올려 드립니다. 처음 입사하고 1년 동안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 팀장님이 나쁘게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회사 동료들 앞에서 “혜진씨는 주말에 교회 가야 돼서 일요일에 근무 못하잖아” 라고 말씀 하셨던 것이 스치듯이 또렷하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주변의 수군거리는 듯한 이야기들과 그들의 시선, 관계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년차부터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주말 근무에 들어가기 시작 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니 지원근무 할 일들이 자주 생겨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여름수련회에 꼭 참석하고 싶어 최대한 일찍 3월부터 이야기 해 냈지만 결국 한사람 한사람 모두를 배려해야 하니 딱 하루만 참석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년 동안은 교회 하기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아직까지 마음가운데 좋지 않은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거뜰히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 신앙을 지키고 똑바로 세워나가기에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주말 근무를 하고 주중에 쉬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웠고 이제는 관찮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주일날 출근이면 토요일은 휴일이니 금요일 저녁에 친구를 만나 놀 수도 있고 당진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생겼으니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져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가니 단단한 기동으로만 서 있을 줄 알았던 내면에 영성은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니 교회와 멀어졌고 또 교회가 어색해졌고 청년회에서도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해 버린 나의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이유가 계기가 되어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계기가 되었을 때 미련 없이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8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은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었고 예배 말씀을 통하여 눈물 흘릴 때가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만나기를 기쁨으로 기대하는 나 자신의 마음과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며 그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회복됨을 느끼는 것 입니다. 지금은 어두웠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생겼으며 주님께서 제게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밝은 모습의 나를 찾아내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배는 주일이니까, 교회 당연히 가야하니까, 반주해야 되니까,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했던 저에게 중요한 인생의 반전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예비하셔서 섭리 가운데에 이끌어주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알기에 눈물이 납니다. 성도님들! 저희 청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놓고 기도해주세요♥ □유혜진 청년

성도 알아가기.

늘 몸뚱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시는

집사님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김정임 집사-

1. 집사님의 성향 김정임의 뜻은 무엇인가요?

곧고 아름답게 자라라입니다.

2. 남편과는 어떻게 부부가 되셨어요?

고등학교때 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고딩 친구죠. ㅎㅎ

3. 성도 섬기는데 있어서 우리교회 일등인 집사님은 그 성품이 어디서 나온걸까요?

저는 원래 피도 눈물도 없다고 친구들이 그랬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

4. 아이들 셋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세 아이들에 대한 엄마로서의 소망을 짧게 말씀해주세요.

아이들이 주님을 잘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잘 섬기는 아이들이 되기를원합니다 ~~정말 정말 꼭 ~~~

5. 남편분 되시는 최선생님을 많이 사랑하시지요?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우실 때는 언제세요?

민지 않는 남편으로서 교회 일에 협력자가 되어 줄 때 감사해요.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해 감사해요.

6.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음 ... 글썽요... 잘 웃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데요~ 맛난거 많이 해준대요. 잘 챙겨주고요. 단점은 너무 많아요. 급한거~ 일단 저 지르고 보는 성격~ 얼음 씹어서 먹는 습관~ 너무 많네요. 그렇지만 저의 장점으로 그것들을 고쳐 보려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7. 날 날아주신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들 그럴겠지만 엄마하면 눈물부터 나네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챙겨드리지 못해 늘 죄송하지요. 지금 다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셔서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8. 집사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어요? 어떤 여학생 학생이었는데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저는 서울 태생이구요. 상도 초등학교, 문창여중을 거쳐 동덕여고를 졸업하였습니다. 초등학교때부터 동네에서 대장이었어요. 싸움대장요. 남자아이들을 때리고 다녔어요^^ 중학교때는 놀기 좋아했구요. 그래서 반 친구들 도시락도 몇 번 뺏어 먹었어요. 포크만 들고 다녔지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9. 고난은 유익이며 이것은 무슨 관문과도 같아서 인생에 몇 번쯤은 그런때가 있기 마련이지요. 집사님은 어떤 고난을 겪은적이 있으시며, 그것으로 어떤 유익을 얻으셨는지요.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저는 성일이 날기 전에 한번의 유산을 한적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고난이 었고 이혼까지 갈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새 생명을 바로 주셔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그 뒤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고, 고난을 유익으로 또한 바꿔주셨죠. 그래서 아이 셋 낳고 지금껏 잘 살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10. 네 믿음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6월달에 받으셨어요. 집사님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믿음을 어찌 확증해야 할까요?

그저 믿고 따르며 주님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동참하겠습니다. ^^

11. 얼마 전 6.13 지방선거가 치뤄졌어요. 많은 치정자들이 선출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세 자녀 중 정치에 입문하겠다는 자녀가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그냥 주님 일에 열심히 하라고 싶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때가서도 아마 지금과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12. 집사님께 큰아들 최성일은 어떤 존재 인가요?

많이 많이 아픈 손가락요. 그냥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13. 주님께서 우리교회를 사랑해주셔서 년마다 달마다 새 생명의 잉태를 축복해주시고 계십니다. 집사님께서 낯째를 잉태하게 되신다면?

노~~ 저희부부는 이미 의학의 도움을 받아 세 아이만 낳는 길은 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주신다면 낳아야 겠지만....현재로서는 노 입니다

14.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분들은 언제나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되는데요. 성일이 아버님께서 교회에 등록하시는 그날 집사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시겠어요?

오~~ 할렐루야 대박 ~~ 저는 세 자녀와 함께 성전 근처로 이사 가도록 노력하며 열심히 남편과 주님 일에 협력자가 될거예요.

15. 요즘 티비를 켜면 졸흔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습니다.

졸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 주신거라 믿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붙어 살거예요^^

16. 성경말씀 중 집사님께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요즘 제가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노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 돈얘기 해볼게요^^ 주님이 집사님께 지금 이 시간 돈을 주신데요.

백지수표. 얼마를 쓰시겠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50억요. 일단 성전건축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전근처로 이사 갈거예요. 그리고 유명자 권사님 집사드리고 싶어요.

18. 집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의 분신이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죠. 저의 키다리 아저씨 ~~~

19.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렇게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삶 가운데 상상으로만 이룰 수 있었던 일이 주님의 은혜로 현실로 나타나길 바라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온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일요.

남편 포함요.

믿음의 가정 본이 되는 가정이 되는 일이지요.

20. 나는 (섬기)는 성도다.



감사릴레이

이재동 집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 고백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만족함을 얻으며 살아가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참 기쁨인지 알게 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릴레이주자 : 김희주 집사

웃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는 ‘쉬지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중보기도팀입니다. 매일 함께 모여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와 개인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시기에 어느 기도 제목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정말 열정으로 기도하십니다. 물론 다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으시죠~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시니까요. 작고 큰 일 등 세세한 부분까지와 자연에 섭리까지도 주장하셔서 비와 구름까지도 몰아내시는 기도의 능력을 모두 체험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중보 기도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봅니다. 늘 기도에 사명 감당하시는 중보기도팀원들의 풍성하고 복된 열매가 올해에는 백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 열매 맺기

구옥순

가정이 같은 신앙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가정이 되며 선한 일에 많이 부한 가정이 되어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가정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장미라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즉각 행하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너를 통해 축복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나를 만나는 이들과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일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인성자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연후이 복학의 모든 준비, 좋은 교수님과 친구들을 붙여 주시고 성령이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이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박선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키며 공부에 열심히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삶에 목표가 주님 안에 있으며 늘 깨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송미정

남편 하는 일 가운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시며 잘 마무리 되어 남편을 통해서 풍성한 물질이 공급되어지게 해 주시어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가정되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는 가정되게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정효선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 무슨 일이든 주님이 우선인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가정도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김진숙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김미진

남편과 아이들의 신앙이 주님 흡족하실 만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빈취의 새 생명이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흠도 점도 티도 없으며 주변을 화평케 하는 귀한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순산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어느덧 1년의 반인 6월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유초등부 친구들은 당진이라는 주제로 한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당진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주는 당진 알아가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몰랐던 당진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합덕수리 박물관, 솔뫼성지, 기지시리 줄다리기 박물관, 필경사(심훈 기념관) 4곳을 선정 하여 방문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읽어보며 체험했으니 오래 기억에 남아있겠지요?

둘째 주는 전주에 아이들이 직접 알아본 당진에 대해서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자신들이 가보지 않은 곳도 알 수 있고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주는 5-6월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이 먹고 떠들며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는 성도님들도 함께 하는 촛극 연습을 하였습니다. 성전에서연습을 하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등장 및 대사 등을 맞추어보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결심과 실천에 대한 자아성찰 ★

임경아권찰 (5번) - 재도전

1. 100% 2. 75% 3. 50% 4. 25% 5. zero

★ 이달의 결심과 실천 ★

장미라 집사

이번 주 주일 말씀과 같이 쉼의 신앙, 성전신앙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매일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둘째는 성경 1장 이상 읽고

셋째는 찬송가 3곡 이상으로 찬양 드리기를 도전합니다.

나의 영혼이 깨어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숨은그림찾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
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숨은그림: 오징어, 과도, 송곳, 유리잔, 빗]

* 부모를 공경하라

- essay.2 -



*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에베소서 6장 2~3절)





THE FEAST OF HARVEST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출23:16)

<성경 퍼즐>

						3		2		7	6	
			1요					4	3		8	7
2												
					5	4						
						6	5					

가로

-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여 벌을 받은 왕이다.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이다.
- 유다의 왕으로서 죄사슬에 묶인 채 노예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 한 나라의 으뜸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강한 나라가 되게 한 왕이다.
- 자기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다.
- 영어로 glory 이다.
- 소의 젖이다.

세로

- 남 유다의 16대 왕이다.
- 손이나 얼굴을 씻는다.
-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태다.
- 몹시 사납고 무서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 미친 소
-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태생은 모두 죽이셨으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절기이다.

레위(Levi)

뜻 : 친함

- [1] 레아가 낳은 야곱의 3자로 레위 지파의 조상이다([창 29:34](#)).
- [2] 예수의 선조중 한 사람으로 시므온의 아들이다([눅 3:29](#)).
- [3] 예수의 선조중 한 사람으로 멜기의 아들이다([눅 3:24](#)).
- [4] 알패오의 아들인데 아마 세리 마태와 동일인인 것 같다(막 2:14)

레위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셋째아들이며 그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의미이다. 레아는 남편과의 완전한 연합 즉, 부부일심동체가 되지 못하여 항상 고민한 여자였으며 따라서 그녀의 마음의 한은 [어떻게 하면 남편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수 있을까]에 있었다. 그러던 중 셋째아들 레위를 낳으므로 남편의 사랑받는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었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이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 아론, 미리암 삼남매는 레위의 장자 고핫의 후손 아므람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선 레위와 아론의 후손을 택하여 장막과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직을 맡게 하셨으며,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연합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는 이웃 부족을 살해한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날 그의 동생 디나가 히위족속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장막을 찾아와서 서로가 사돈지간이 되어 상부상조하면서 살 것을 제안했다. 이때 야곱과 그의 아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히위족속의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면 응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돌아가서 직접 할례를 행 하고 부족도 할례를 받게 한 후 통증이 멎을 때까지 장막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가 칼을 들고 하몰의 장막을 찾아가서 세겜과 히위족속의 남자들을 모두 죽여 버리고 말았다. 이 일로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유훈을 받게 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니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 줄을 끊었음이라](창 49:6-7). 이것을 보아 레위의 후손은 죄값을 지불키 위한 제사장들이며 그들의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속으로 뛰어 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 불에 싸인 아이들은 무사 했지만 어머니는 온 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날 졸업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 대학을 찾아 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위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위실에 “그런 사람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 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룩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 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빈들이 수근 거리자 어머니는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한 물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속에서 구해 내고 구걸을 해서 공부시킨 어머니라고 설명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 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아들을 불속에서 건져내고 구걸을 하면서 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달에 issue>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018년 6월 14일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인의 눈길이 러시아 월드컵으로 향해있다. 우리나라 또한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러시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선수는 물론이고 감독 코치 주치의 등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현지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응원단 또한 현지로 가 있다. 이러한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땀 흘리는 선수들을 응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3번의 경기를 치른 상황이다. 첫 번째 경기는 스웨덴과의 경기로 0 대 1 로 패한 상황이고 두번째 경기는 멕시코와의 경기! 이 또한 1 대 2로 패했다. 또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2 대 0 이라는 이변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기쁨에 환호성을 안겨 주었다. 스포츠 중에서 축구는 단연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축구를 통하여 남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쉬지 않고 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나라가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 당진순복음교회가 사용되어지길 기도한다.



짧은 글 긴 여운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友情(우정)에 금이 가고
자식과의 약속을 어기면 尊敬(존경)이 사라지며
기업과의 약속을 어기면 去來(거래)가 끊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엔 負擔(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못 믿는다면 세상엔 나를 믿어줄 자 없으리라 봅니다.
뛰어가려면 늦지 않게 가고 어차피 늦을 거라면 뛰어가지 마라.
후회할 거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라면 절대 後悔(후회)하지 마라.

죽은 博士(박사)보다 살아있는 멍청이가 낫다.
그래서 자식을 아주 잘 키우면 國家(국가)의 자식이 되고,
그 다음으로 잘 키우면 丈母(장모)의 자식이 되고,
적당히 잘 키우면 내 자식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下水道(하수도)가 막혔다고, 電球(전구)가 나갔다고,
미국에 있는 아들을 부를 수 없고
서울에 있는 아들을 부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 년에 겨우 한두 번 볼까말까 하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고
평생에 한두 번 볼 수 있고
사진을 통해서나 겨우 만날 수 있는 손자들이
내 손자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Family”의 어원은 …….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즉,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 의
첫 글자들을 합성한 것이랍니다.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사내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습니다.

權勢(권세)와 名譽(명예), 富貴榮華(부귀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清廉潔白(청렴결백) 하다고 말하지만
가까이 하고서도 이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清廉(청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권모술수(權謀術數)를 모르는 사람은
高尚(고상)하다고 말하지만
권모술수를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고상한 人格者(인격자)입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三年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三十年이 행복하고,
知慧(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三代가 행복하답니다.

잘 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세 시간 동안의 행복이 보장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통장 세 개의 행복이 보장되고,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면
平生(평생)의 행복이 보장 된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법



- 충분한 수분보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과 달리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체내에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탄산음료나 주스 등과 같이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료보다는 물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열사병" 및 "일사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위험한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충분한 수분보충이란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체내흡수가 더 빠르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 깨끗이 손 씻기.

물놀이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여름철에는 눈병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병을 유발시키는 눈병 바이러스는 더운 날씨와 습도를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철 가장 많이 늘어나는 눈병질환, 이런 눈병 예방의 지름길은 개인의 위생상태를 청결히 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눈병 뿐만 아니라 각종 여름질환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주 손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 음식 및 개인위생 챙기기

계속되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는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의 대표적 질병이 식중독 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률이 높아지고, 구토와 복통 및 설사 등을 동반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손부터 씻어 깨끗이 하고, 칼이나 도마는 육류/어류/채소류 등으로 따로 준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여름철 음식재료는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냉동식품을 고를 때는 서리가 있거나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 덥다고 에어컨만 트는 것이 아닌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냉방기기 깨끗이 하기.



여름철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에어컨 필터 및 보관되어 있던 선풍기를 깨끗이 청소하여 미세먼지와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음식물과 개인위생에 신경쓰다보면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냉방기기 이므로, 잊지말고 사용전에 그리고 중간 중간에 청소를 해주어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머

갈비뼈 숫자

어느 날 아담이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하와가 매우 화가 나서 소리 쳤다.

“당신 지금 몇시 인줄 알아요? 당신 다른 여자가 생긴 거죠?”

아담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점잖게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당신뿐이잖아!”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어 얼마를 잤는지.....

아담은 누군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바람에 잠에서 깨었다. 하와였다.

“당신 뭐하는 거야? 자지 않고?.....

그러자 하와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말 시키지 말아욱!!! 지금 갈비뼈 숫자 세고 있는 중이니까!!



시사용어 Briefing

1. 치킨게임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망하는 극단적인 상황. 유래는 1950년대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이다.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

어느 한쪽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기기 위해 핸들을 꺾지 않으면 두 차량은 충돌함으로써 양쪽 모두 자멸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극심한 군사 경쟁을 비유하는 용어로 쓰면서 국제 정치학 용어로 굳어짐.

2. 파킨스 법칙

업무의 양과 상관없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법칙.

영국의 학자 파킨슨이 제창한 사회 생태학적 법칙으로, 그들의 업무의 양이나 필요성과 상관없이 진급을 위한 발판으로 부하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법칙. 이러한 요인의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 해야 할 때 동료에게 도움을 받아 경쟁자를 늘리는 방법보다는 부하 직원을 늘리기를 원하는 것. 또는 부하직원이 늘어나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의 과정이 파생되어, 결국 서로를 위해 계속 일거리를 제공하는 셈.

3. 도미노 이론

어느 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그 인접한 나라들도 도미노처럼 공산화 된다는 이론. 미국의 국무장관 J.F. 델레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 1954년 아이젠하워 정부의 경제 원조를 정당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 ↔ 역도미노이론 : 한 나라가 민주화되면 그 나라의 주변 나라들도 도미노처럼 버져 민주화 된다는 이론.

4. 백서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등의 각 분야에 대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보고서. 백서는 영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 명칭에 유래 됨.

표지의 색상이 백색이라 붙여진 명칭. 공식문서의 명칭으로 사용됨. 경제백서, 노동백서, 군사백서 등으로 사용됨.

5. 폴리페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와 교수를 뜻하는 프로페서의 합성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용됨. 교수가 정치권에 진출하여 사회발전, 학문 연구에 힘써야 할 교수가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려는 것을 뜻한다.

정치참여교수.

학문의 전문성을 정치에 접목 시켜 정치를 발전 시킨다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학계의 권력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더욱 강하다.

※ 폴리널리스트 → 정치와 언론인의 합성어. 언론 활동을 바탕으로 정계 진출을 시도하는 언론인을 지칭함. 부정적 의미.

**인생은 ‘비로소’를 향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과정이다
-이동영 작가-**

◎ 이달의 교회소식

1. 맥추감사절 / 7월 1일
2. 촌극대회 / 7월 1일 오후6시
3. 요한남선 헌신예배 / 7월 8일 오후7:30
4. 배드민턴대회 / 7월 14일 오후1시 탐동초교 실내체육관
5. 침례문답식 / 7월 15일 오후12:30
6. 교사헌신예배 / 7월 22일 오후6:시
7. 교사단합대회 / 7월 24일 오후7시
8. 여름성경학교 / 7월 27일~30일

● 공지사항

1. 7월 생활실천표어 : 영혼을 시원케 하리
2. 교회소방설비공사 / 6월 12일~7월 14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무: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찬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